

## 200년 된 장로교회서 ‘드래그퀸’ 행사 열어 논란

SF 갈보리장로교회, 페이스북에 “드래그퀸 은사에 감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200년의 역사를 가진 장로교회에서 주일날 드래그 퀸(여장 남성)이 성경을 읽어주는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8일 샌프란시스코의 필모어 스트리트에 위치한 갈보리 장로교회(Calvary Presbyterian Church)는 친동성애자인 제인 스파르 목사와 공연가인 조앤 페브릭스 및 플래미 그랜트와 함께 ‘드래그 퀸 바이블 스토리 아워’(Drag Queen Bible Story Hour) 행사를 진행했다.

이 교회는 “드래그 퀸들의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며 행사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했다.

6월 18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다양성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진리를 고수한다”며 “드래그 퀸들이 가진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지역 NBC 계열사의 보도에 따르면 빅터 플로이드 담임목사는 교회가 “드래그 공연가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이 행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드래그 퀸 분장을 한 남성이 주일날에 어린이들이 포함된 교인들 앞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갈보리장로교회 페이스북

사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플로이드는 “우리는 미국에 만연한 모든 혐오스러운 언행에 약간의 균형을 제공하기를 바라며, 특히 트랜스젠더 및 드래그 퀸을 소품처럼 사용하는 교회와 정치인들에게 그러하길 바란다”고 했다.

자칭 레즈비언 전도사인 스파르는 1993년부터 미국장로교(PCUSA)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옹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그는 동성 결혼식을 주례함으로써 안수 서약을 위반한 혐의로 PCUSA 교단 위원회의 유

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PCUSA는 결혼의 정의를 동성애자를 포함한 “두 사람의 결합”으로 개정하는 교단법을 노회 투표에 제출했다. 그 결과, 172개의 노회 중 86개가 교단법 개정안에 찬성하여 최종 승인되었다.

1854년 7월에 설립된 갈보리 장로교회는 샌프란시스코의 공식적인 유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미국 국립 사적지 목록에 포함된 유서 깊은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3인칭 대명사

사용을 옹호하고 있으며, 교회 입구에는 “하나님: 원래 그들/그들”(GOD: the original they/them)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드래그 퀸 공연은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다양한 교회에서 교인들을 교육하는 행사로 퍼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위자, 드래그 공연가 및 모피를 입은 성인이 지역 교회가 주최한 가족 친화적인 드래그 쇼에 참석했다. 텍사스주 서면에 있는 동성에 옹호 단체 그레이슨 카운티 프라이드가 주최한 ‘프라이드 무도회’ 행사에는 어린이들이 참석한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2022년 10월에는 플로리다주 한 연합감리교회가 드래그 퀸 공연가를 초청했으며, 그는 옆자리에 아이들을 앉힌 채 설교를 진행했다.

앨런데일 연합감리교회(Allendale UMC)의 담임목사인 앤디 올리버는 드래그 퀸 공연가 아이작 시몬스를 설교 강단에 세웠다. 이후 올리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한다”라며 초청한 이유를 밝혔다.

당시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예배 영상에는 시몬스를 “밤에 들판에서 양치기들에게 기쁜 소식이 그들의 문 앞에 도착했다고 알려주는 하이힐을 신은 천사”라고 묘사했다.

김유진 기자

## 연방법원,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는 위법” 판결

아칸소주 법무장관 “아이들 보호 위해 계속 싸울 것”



포괄적 교육 법안 '상원법안 294'에 서명한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트위터/사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 아칸소주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칸소주 리틀록 연방법원의 제임스 무디(James Moody) 판사는 지난 20일 “청소년 성별 재지정 금

지법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칸소주정부가 2021년 제정한 해당 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 및 트랜스젠더의 성별 재지정을 목적으로 한 호르몬 투여 및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디 판사는 “의료 및 정신 건강 분야에서 성별 위화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고통이 자신이 느끼는 성 정체성에 따라 생활할 때

만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아칸소주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가정과 다른 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의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청소년과 부모 및 의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전환 수술은 잠재적인 위험과 부작용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소아 치료 위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아칸소주는 성전환 절차나 의료계의 윤리적 쇠퇴로부터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패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칸소 주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팀 그리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성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위험한 의료 실험에서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한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리핀 장관은 “불행히도 무디 판사는 미국 전역과 영국, 유럽 국가들에서 널리 이해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 어떤 어린이도 성전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며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터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3년 **월드미션대학교**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가을학기 온라인 입학설명회 2023. 7.14(금) 5PM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방식  
 미국 ATS 인가 프로그램  
 온라인 100% 트랙

학위과정별 전공

준학사과정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학사과정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석사과정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복지선교, 코칭 전공)
석박사통합과정	신학 전공, 음악학 전공, 예배학 전공, 상담코칭 전공
박사과정	목회학, 음악연주학, 실천신학(영성과 상담코칭, 종교와 문화)
수료과정	유아교육, 비영리단체사역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muinfo@wmu.edu | www.wmu.edu

가을학기 온라인 입학설명회 신청QR

# 미드웨스턴 이상환 교수 「Re: 성경을 읽다」 북토크

미드웨스턴 한국부와 학영 출판사는 7월 10일 오후 7시 (미국 중부시간) 미드웨스턴 성경해석학 교수이자 제2성전기 문헌을 주로 연구하는 이상환 교수와 함께 신간 『Re: 성경을 읽다』 출판기념회 및 북토크를 온라인으로 갖는다. 이상환 교수는 Religions, Journal of Ancient Judaism, Journal of Greco-Roman Christianity and Judaism,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Novum Testamentum, Biblica 등 저명한 A급 학술지에 꾸준히 연구물을 발표하며 신진 학자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상환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성경을 읽는 독자가 성경과 어떻게 의사소통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한 배경지식의 중요성, 성경 시대와 현 시대의 시간적 간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 해석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의 재정의된 개념과 웨슬리안 사변형의 해석학적 유용성, 저자/텍스트/청중 중심의 접근법들, 의사소통 모형 및 적용, 하팍스 레고미나, 이문 분석 등의 꽤 어려운 주제도 다루고 있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이상환 교수가 본서를 집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해석이 성경을 읽는 독자와 사역에 주는 중요성, 그리고 오늘날의 해석이 오용되고 있는 점 등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북토크의 패널로 미드웨스턴 아시아 부 학장인 박성진 교수와 학영 출판사의 이학영 대표도 함께 참여해서 해석학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나누게 될 예정이다. 또한, 북토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참석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열 명에게 저자 서명이 들어간 『Re: 성경을 읽다』를 증정할 계획이다.

미드웨스턴 한국부와 학영 출판사가 함께 콜라보로 진행되는 본 온라인 북토크는



무료로 진행되며 [https://us06web.zoom.us/join/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VpiE\\_pVN-Qz65QBz2qa95GQ](https://us06web.zoom.us/join/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VpiE_pVN-Qz65QBz2qa95GQ) 에서 등록할 수 있다. 사

전 등록한 자에 한해 이메일로 웨비나 접속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 등록은 500명에 한하며 미드웨스턴 한국부의 유튜브 채널인 '신학 홈런'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교회를 위하여'의 기치로 세워진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는, 남침례회(SBC) 산하 여섯 개의 신학대학원 가운데 하나로 북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 (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정식 인가되어 있다.

현재 한국부는 재학생만 720여 명으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 과정 가운데 북미 최대 규모이며 최고의 질적 수준의 강의로 정평이 나있다. 미드웨스턴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ks](http://www.mbts.edu/ks))를 통하거나 김윤주 팀장(이메일: [ks@mbts.edu](mailto:ks@mbts.edu); Tel.: 816-414-3754)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주디 기자

## 디카시인협회 | 금주의 시



### 불쌍한 오리야

기우뚱 기우뚱  
풀속에 감추어진 너의 발  
그래도 먹을 것을 찾아 걸어가는 거니

많이 힘들지  
내가 치료하여 줄 수 있다면  
내 마음이 미어지지 않으려면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리도 만드셨지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세요

-글: 사진: 최순길-

## '자녀들의 마음을 읽기' 무료 특별강좌 열린다



얼바인중앙침례교회(담임 정성택 목사)가 '자녀들의 마음을 읽기'를 주제로 부모들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오는 7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3일간 부모들을 위한 아동심리교육 특별 무료강좌다.

강사는 한국의 EBS '육아학교', '부모', KBS 1라디오의, '교육을 말합시다' 등 다수의 교육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모들에게 큰 공감과 도움을 주고 있는 숙명여대 놀이치료학과 이영애 교수다.

7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에는 [자녀의 자존감]에 관해, 7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자녀의 사회성]을 주제로, 8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는 [기질에 따른 학습방법]을 주

제로 강의가 진행되며 강의 후에는 개인상담 시간도 준비돼 있다. 이 기간동안 부모와 함께 오는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 돌봄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대상은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알고 배워와 나남겨서 말기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원하는 부모와 조부모, 그외 관심 있는 모든 이 들이다.

얼바인중앙침례교회는 240 Goddard Irvine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는 949.800.9647 혹은 [ijbcorg@gmail.com](mailto:ijbcorg@gmail.com)로 하면 된다.

토마스맹 기자

## 신간 소개 '탈진을 긍정하라'

김은주 교수(미주장신대학교)가 <탈진을 긍정하라>를 출간했다.

<탈진을 긍정하라>는 미주장신대학교 신교학 철학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쓴 책으로, 선교사의 탈진이 지닌 다양한 함의를 선교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가이드북이다. 이 책은 탈진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한국 교회의 선교가 좀 더 건강해 지길 바라며, 선교사의 중도 탈락으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손실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집필한 책이다.

선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선교사 전인케 어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이다.

김은주 교수는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사역 경험을 하였고, 전문인 선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탈진에 관한 비평적 통찰"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주장회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 지학과 더불어 선교학을 교수하고 있다.

미주장신대학교는 7월 3일 오전 10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자세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562.926.1023 / F. 562.926.1025 / [office@pts.edu](mailto:office@pts.edu)

한주디 기자



## 365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CGN LIVE와 함께!

무료 시청



스마트폰에 CGN LIVE 앱을 설치하시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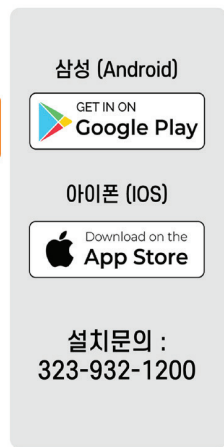
### CGN LIVE 앱 설치방법

구글 플레이 앱 또는 앱 스토어에서

CGN LIVE 를 검색 하세요



무료 다운로드



설치문의 : 323-932-1200

### 추천 프로그램 방송시간 안내(LA시간)

- 새벽기도회 오전 2시 / 오전 5시
- 주일예배 오전 7시 ~ 오후 10시 30분
- 하용조목사의 말씀 오전 3시 50분 / 오전 9시 / 오후 6시 50분
- 설교말씀 월요일 ~ 금요일 - 오후 10시 30분  
월요일 ~ 토요일 - 오전 7시 10분 / 오전 7시 50분 / 오후 2시 / 오후 2시 40분 / 오후 4시 10분 / 오후 5시 30분 / 오후 10시 30분 / 오후 12시 40분
- 성경읽기 월요일 ~ 토요일 - 새벽 3시 10분 / 오전 6시 20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오후 11시 40분
- QT(말씀묵상) 새벽 2시 50분 / 오전 6시 / 오후 9시 30분
- 건강체조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50분
- 조해련의 오십쇼 화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밤 12시 / 금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에메이징 그레이스) 수요일 오후 6시 10분 / 목요일 오전 10시 50분
- 신앙간증(더불어 사는 삶) 수요일 오전 6시 40분 / 목요일 오전 12시 10분 / 금요일 00:00 / 토요일 10시 50분



TV로 CGN LIVE 시청하기  
남가주 디지털공중파 채널 44.9(디지털안테나 설치)  
CGN 시청용 전용수신기 설치 (HD 고화질로 시청가능)



문의 : 323-932-1200 | [cgntvusa@gmail.com](mailto:cgntvusa@gmail.com)

# 보블리스 선교합창단 제6회 공연 성황리에 마쳐

보블리스 선교합창단(Beaubliss Mission Choir, 단장 유영애·지휘 김철이) 제 6회 정기 연주회가 지난 24일 오후 6시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19년 공연 이후 팬데믹 으로 중단됐다가 3년만에 개최된 이날 연주회는 팬데믹 기간 모두가 겪었던 아픔과 이별을 위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승리의 찬양을 돌리고자 마련됐다.

유영애 단장은 “보블리스 선교합창단이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며 하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선교합창단이 되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총 3스테이지로 진행된 이날 연주는 1스테이지에서 ‘영화롭도다,’ ‘깨어나라,’ ‘감사’ 등의 정통 클래식 찬양을 연주했다. 2스테이지는 ‘주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리,’ ‘주와 같이 길가는 것,’ ‘날 사랑하심,’ ‘내 진정 사모하는,’ 등의 익숙한 찬송을 편곡해서 연주했다. 이어 3스테이지는 ‘성령시대,’ ‘시온성,’ ‘고



보블리스 선교합창단 제 6회 공연

노의 갈리아’를 Chamber Orchestra가 합주해 웅장한 연주를 들려주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남성으로 구성된 LA CANTUS 중창단은 ‘기쁜 날,’ ‘그날 곧 오네,’ ‘순례의 합창,’ ‘예수 밖에는’ 등을 불렀으며 특별게스트로 초대

된 소프라노 정원혜씨가 ‘주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 큰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보블리스 선교합창단과 청중과 함께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다같이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든 순서는 구경모 목사(한빛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2015년 2월 순수 아아추어 단원으로 구성된 보블리스 선교합창단은 지휘 김철이 목사, 반주 김경혜 김선영 사모와 30여명의 단원들이 매주 화요일에 연습을 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비전케어 서부지부, 팬데믹 후 첫 해외 사역 앞뒤

비전케어서비스 서부지부(VCS West·이사장 고정원)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종료했던 해외사역을 재개한다. 비전케어 서부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주일동안 과테말라 케찰테낭고에 있는 지역에서 무료 안검진 및 백내장 수술을 제공하는 아이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과테말라 아이캠프에는 에드워드 이안과전문의 등 3 명의 안과전문의가 참가하며, 의과대학원생 및 대학생 6 명,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4 명 등 20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안과전문의들은 이번 사역 기간 동안 무료 검진 및 수술 외에도 현지 전문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방법도 모색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고정원 이사장은 “팬데믹 기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여러 나라에서 받았지만 갈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며 “과테말라 아이캠프를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난 팬데믹 기간에 한인타운 등 로컬 사역을 자체 기금으로 운영해왔다. 지

난 3년간 백내장 수술을 받은 한인 및 타인종은 모두 20 여명이 된다”며 “해외 사역을 하려면 기금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기금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제 3국가 주민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전케어 서부지부 창립자인 서영석 고문이사(안과전문의)는 “미국과 달리 중남미 국가에서는 백내장 비용이 비싸서 저소득층 환자들은 쉽게 받지 못한다”며 “과테말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려면 1인당 약 120달러의 비용이 든다. 작은 관심만 있으면 1명의 시력을 살릴 수 있다. 관심 있는 한인들은 지원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번 과테말라 아이캠프를 위해 LA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백내장 수술 기금 2천달러를 지원하고 교회 소속 의료선교팀(팀장 홍두한) 5 명을 자원봉사자로 파견한다.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회장 김용진 장로)에서도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10 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1인당 1백달러씩 기금을 모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과테말라 아이캠프는 오픈뱅크, 피델리티 재단, 영락교회 해외선교부, LA 나성한인교회,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에서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진행된다. 토마스맹 기자

## 센터메디컬그룹 건강 세미나 뜨거운 호응

센터메디컬그룹 주치의 성동진 박사(내과)가 28일 가디나 양로보건센터에서 ‘노년기 소화 장애와 장내 유산균의 중요성’에 건강세미나로 150명 시니어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강연은 센터메디컬그룹이 지난 2월부터 달마다 실시해온 건강세미나의 7번째 행사였다. 6월만 놓고 보면 6, 8일에 이은 3번째. 성동진 박사 개인적으로도 3번째 재능 기부 강연이었다.

7차례 건강 세미나에는 총 875명의 시니어들이 참석해 건강 관리 및 유지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줬다. 주최 측은 “정성을 다하는 진료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센터메디컬그룹은 후반기에도 알토탄같은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 세미나를 이어 나가 시니어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주디 기자

## 한동대학교 내달 초 LA서 입학설명회

한동대학교가 오는 7월 5일(수)부터 9일(주일)까지 LA를 방문해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8일(토) 오전 10시 LA 온누리교회, 9일(주일) 오후 1시 30분 LA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학동대 국제화/특성화 교육안내와 해외학생 입학안내, 일대일 상담 등이 제공된다.

한동대학교 측은 “본 대학은 지난

28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성장했다. 매년 전세계 40여개국에서 한동대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으며, 북미지역에서도 꾸준히 학생들이 오고 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배워서 남 주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인재를 계속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주디 기자



#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 검진내용

- CT 촬영(뇌, 폐 선택)
- 수면 대장내시경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수면 위내시경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골밀도
- 70개의 기본검사

### 검진비용

~~\$950~~ **\$44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34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3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 현지 교회 중심 선교 위한 '변화와 협력' 다짐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현장 중심의 선교', 비서구권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 '지속 가능한 선교' 등 보다 성경적이고 건강한 선교를 하기 위한 변화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한국 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북미주 한인교회 및 디아스포라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전 세계 200여 국가 3만여 한인 선교사를 대표하는 한인세계선교사회(KWMF)는 20일 서울 노량진 KWMA 세미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3~16일 강원 평창에서 열린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발전시켜 구체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에 대한 결의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KWMA 운영이사회 제1부이사장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 담임),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 KWMC 사무총장 조용중 목사, KWMF 공동대표 이은용 목사, 공동대표 방도호 목사가 참석해 각자 발언한 후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은 KWMA 미래선교개발센터장 정용구 목사가 낭독했다.

이날 공개된 '제8차 NCOWE 이후, 구체적



KWMA, KWMC, KWMF가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이후 세계선교를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에 관한 결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KWMC 사무총장 조용중 목사, KWMA 운영이사회 제1부이사장 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 담임),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 KWMF 공동대표 이은용 목사, 공동대표 방도호 목사 ©이지희 기자

액션 플랜을 위한 결의서'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먼저 "①경제 발전에 따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지만 파송받은 선교사는 선교지 문화를 이해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였고 오히려 '후원교회의 선교 철학'을 더 중히 여기는 사례가 있음을 고백한다"며 "성육신이 보여주는 대로 더욱 '현장 중심의 선교'를 펼

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②우리는 선교가 해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며, '지역'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확인한다"며 "국내 거주하면서 다른 문화권 속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사역하는 목회

자들을 동역자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이주민들에게 이마고 데이(Imago Dei, 하나님의 형상) &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환대)를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③교회의 '선교 성숙 척도'가 모든 성도가 선교인(Mission minded Christian)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는다"라며 "우리는 서구권 중심의 선교 방식을 지양하고, 비서구권의 교회들과 더불어 '재정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 중심의 선교'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선교'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율러 "④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며 영적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후원하겠다"고 했고, "⑤선교사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인들에 의해 스스로 성장하는 교회로 성숙해 가는 것을 인식하고, 현지 교회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겠다", "⑥우리는 젊은 세대가 선교의 주역임을 인식하면서 이들의 동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 “퀴어축제, 왜곡된 성문화 강요... 대현동 모스크 건립 중단해야”

### 시민단체들, 대구에서 국민대회 개최

대구 퀴어축제가 열린 지난 17일, 대구 중앙네거리 교보문고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열고 "성적 타락 부추기는 퀴어축제를 중단하고 대현동 모스크 건립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독교가치수호연대(기가연)이 주최하고 대구대현동국민권침해법국민대책위원회(대구위), 국민권침해법국민대책위원회(국대위), 국민주권운동 등이 주관한 이 기도회에서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이하 대구퀴어조직위)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외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동성애적 성적취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강요이고, 자신들의 성적취향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을 혐오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독선적인 주장을 수 년간 계속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21년 국가인권위에 보고된 인권차별의 통계를 보면 성소수자 건은 단 2건의 권고사항에 그쳤으며, 이것도 심사중인 사항이었다. 이는 성소수자 차별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차별받았다고 억울하다고 외치며 차별금지법 도입에 앞장서는 퀴어조직위의 주장은 독선적이고 위선적이며 이기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축 강행을 규탄한 이들은 "대현동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공권력에 휘둘리고 매국노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힘없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에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국인 난입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당해야만 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주택가 한복판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절골구조 건축물이 세워진다니 말이 되는가. 현재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이처럼 막가파식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는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대구시 북구청공무원들의 과실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대구 북구청은 원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이슬람사원 편만 들어줘 주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단순히 대구 대현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인 대구 대현동 주택가 한복판에 일제 점령군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종교시설 공사를 강행하는 이슬람사원 건축주들과 이를 비호해온 문화사대주의 매국노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북한인권재단 설립 통해 북한 주민 인권신장 이뤄지길”

### 한기총, 6.25 제73주년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6.25 한국전쟁 제73주년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적 아픔을 위로하고 동시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 바친 국군장병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UN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긴다"며 "남과 북으로 갈라져 여전히 분단된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며, 현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초에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이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등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지금도 남북은 정전(停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국가 안보

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제1,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우리의 장병들은 피 흘려 방위선을 지켜냈다. 6.25전쟁,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등에 대해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서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해야 하며, 교육으로 국민이 더욱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해서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지난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나 국회 등의 이사 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국회에서 이사 추천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식적이고도 투명하게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예배와 #삶을 #연결하다

## 원하트 청년 예배자 연합 수련회 '23

### JOINT YOUNG ADULTS WORSHIP RETREAT '23

**일시** 7.28.금 - 7.30.주일 **장소** Azusa Pacific University (Duke Student Commons)

**Retreat Speakers**  
(원하트 웹사이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현수 목사**  
- 시애틀 형제교회  
- 바벨 캠퍼스 총괄 목사  
- KOSTA 강사

**윤만 대표**  
- New Connect Freight 대표  
- 제 21차 한상대회 공동대회장

**한태욱 대표**  
- 커피브레이크 US 한인 대표  
- Business & Life Coach

**렌다킴 대표**  
- Los Angeles Praise & Worship 대표  
- Producer/Arranger/Conductor

**김도일 목사**  
- 세계동대교회 담임목사  
- Lighthouse Studio Director

**원하트 워십**  
- Worship & Praise

**등록비 안내**

개인 및 일반 교회 청년	\$120
단체 (10명+)	\$90
작은 교회 청년	\$40
<small>(장년성도 전체 30명 이하)</small>	

**등록방법**

www.oneheart-usa.com/retreat

원하트 미니스트리 웹사이트의 수련회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단체 등록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단체**

GBC 기독교일보 CBS TV WeBridge 교회연합

**문의** 213.347.5080 myoneheartministry@gmail.com www.oneheart-usa.com

**ONEHEART MINISTRY**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긋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 조이스 리, M.D.

## 진료과목

###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박사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 “분열과 갈등의 장로교회, 다시 일어서자”

### 제15회 ‘한국장로교의 날, 7월 10일 연동교회서 매년 장로교 연합 멈춘 적 없어 설교 오정현 목사, 시상식 등 진행

한국 장로교단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연합을 도모하는 ‘제15회 한국장로교의 날’ 대회가 올해는 7월 10일 오후 2시 연동교회(예장 통합)에서 개최된다.

이를 주관하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상임회장 천환 목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이레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간담회는 언론위원장 황연식 목사(협동총무)가 사회를 맡고, 대회장 정서영 목사(대표회장)의 인사말, 준비위원장 천환 목사(상임회장)의 계획안 설명, 마무리 기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표어는 ‘다시 일어서는 장로교회(마 16:18)’, 주제성구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이다. 설교는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예장 합동)가 맡았다.

한장총은 이번 대회 주된 목적으로 첫째 ‘말씀과 전통을 통한 장로교의 개혁이 날마다 계속되도록 한다(개혁)’, 둘째 ‘개혁의 유산들을 재정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전통을 이어간다(혁신)’, 셋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 장로교 신학과 신앙을 다음세대에 전수한다(재건)’를 꼽았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장로교의 날은 흠어진 장로교단들이 간접적으로 하나 뭉을 선포하고,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을 교다시 돌아보며 일치운동을 펼치는 자리”라며 “한국장로교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천환 상임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한국장로교의 날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지속돼 왔다. 그간의 분열과 갈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장로교가 다시 일어서자는 취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한국장로교의 날은 1부 예배와 2부 기념식 및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 및 비전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각각 목회, 교육, 선교, 복지, 기업 부문에서 한다.

당일 오전 10시에는 “Covid-19 이후 장



제15회 한국장로교의 날 대회장 정서영 한장총 대표회장(가운데), 준비위원장 천환 상임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기자간담회에 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로교 예배 회복”을 주제로 미래포럼을 연다. 주강사로는 안교성 교수(장신대),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정대운 목사(삼송제일교회)가 나선다.

또 대회에 앞서 6월 30일(금) 오전 10시 30분 고신총회 회관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사’를 주제로 총무/사무총장 스터디를 진행하며, 김보현 목사(통합 사무총장)와 정

성엽 목사(합신 총무)가 강사를 맡았다.

7월 3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한장총 회원교단 산하 신학대학교(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탐방을 한다. 누산교회, 인천제일교회, 성원교회, 인천제2교회 등에서 진행하며, 언더우드 선교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일정이 될 예정이다.

송경호 기자

## ‘여성 안수 금지’ 예상 합동... 73.6% “안수 찬성”

### 찬성 이유, ‘사역 전문성’ ‘남녀 사역 평등’ 등 반대(24.3%) 이유, ‘개혁주의 신학에 안 맞아’ ‘공감대 부족’ 등

예장 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이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교단 ‘여성사역지자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목 목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3.6%가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 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총회회관 개최한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교단 행사들에 참석한 목사·장로들에게 설문지를 배부, 총 205명(목사 183

명, 장로 22명)에게서 얻은 결과다. 이들의 연령대는 60대가 53.6%(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8.0%(78명), 40대 8.4%(17명) 순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서 △적극 찬성 31.7%(65명) △찬성 41.9%(86명) △적극 반대 2.9%(6명) △반대 21.4%(44명)였다. 적극 찬성과 찬성을 합하면 73.6%(151명)다. 적극 반대와 반대를 합하면 24.3%(50명)이다.

여성 안수 시행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역의 전문성 때문’이 36.5%(75)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남녀 사역이 평등해야 하기 때문’ 27.3%(56명)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 20.0%(41명) △‘교역자 수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 7.8%(16명)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 3.9%(8명) △‘정통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기 때문’ 2.9%(6명) 순이었다.

여성 안수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 6.3%(13명) △‘지역교회의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 5.8%(12명) △‘시행하기에는 제도적 준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 4.3%(9명)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 3.9%(8명) △‘비성경

적이기 때문’ 2.4%(5명) △‘교회 문화(당회)에 다소 불편함이 많은 것 같기 때문’ 1.4%(3명) 순으로 꼽혔다.

여성 안수 시행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선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연구해 보고한 후 시행하면 좋겠다 △제108회 총회 때 일단 허락하고 헌법을 개정한 후 시행하면 좋겠다가 33.6%(69명)으로 같았고, △상비부에 맡겨서 연구하도록 하며 보고한 후 시행하면 좋겠다 12.1%(25명)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3%(9명)이었다.

한편, 예장 합동 측은 지난해 107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에 대한 신학적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강도권’ 등 교단 내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107회기에서 연구하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 “6.25 73주년, 비극과 희생, 우방국 도움 잊지 말아야”

### 교회언론회, ‘강도 만난 이웃 나라들 도와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들은 국가를 위한 제사장처럼 국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방국가들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야 한다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 ◆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며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한반도에 국가가 세워진 이후 수천 년에 그날과 같은 슬픔의 날이 또 있었는가?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다”(신명기 32:7)고 하셨다.

#### 1.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에 낭만이 있으리라는 김일성 북한 공산당의 천인공로 할 6.25 전쟁은 이 땅에 벌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낸 전쟁이다. 피해 규모는 피아(彼我)간의 인명피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400만 명이 넘으며, 전국 국토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어, 그 처참함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에는 100년의 시간도 모자랄 것이다”는 평가로 짐작이 된다.



유엔군 크리스천 장병들이 서울 수복 후 중앙청 앞에서 감사예배를 드리는 모습. ©페이스북

전쟁 3년에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으니, 전세계에서도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은 쉽지 않다. 이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역사를 잊는 민족의 미래는 없다”이다.

#### 2.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 당사자인 한국군의 희생이 가장 컸음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군 전사자 부상자 62만 명이 넘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인명피해는 전사자 37,900명 부상자 10만 3천 명과 실종자 등 합계가 151,12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73년 전의 부상의 고통을 지니고 지금도 고통하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힘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 3. 우방국가들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돕기 위하여 전세계 22개국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큰 희생을 치루었다. 물자, 의료지원과 전후에 복

구를 위하여 많은 지원이 있었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으로 유익한 곤충들까지 사라짐으로 농업에 큰 지장이 있음을 알고 꿀벌 수 백만마리를 보내준 배려까지를 생각하면 지난 날 우방국들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 4. 우리도 이제 강도 만난 이웃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으니,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감당해야 할 부분을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들은 국가를 위한 제사장처럼 국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대웅 기자

## “탈북민 선교가 곧 북한 선교, 복음 없는 통일은 재앙”

### 강기총 ‘한반도 복음통일 컨퍼런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양명환 목사, 이하 강기총)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블레싱강원포럼’을 22일 발족한 가운데, 북한 동포 구원을 위한 ‘한반도 복음통일 컨퍼런스(담론)’도 이날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독교 동 대표)가 ‘북한의 영적이해와 복음통일’, 김권능 목사(북기총 직전회장)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강의를 각각 전했다.

이용희 교수는 먼저 북한 교과서에서의 김일성 일가에 대한 이상화와 신격화를 소개한 뒤, ‘북한 사도신경’과 김일성을 하느님이라고 설명하는 <로동신문>을 제시하며 “북한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세계 10대 종교’에 속한 주체사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구원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한국교회 목사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북한구원을 위한 기도를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권능 목사는 “탈북민 선교가 곧 하나님의 북한 선교”라며 “복음 없는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현재 남한에 3만 3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교회가 돌보고 있다”며 “탈북 후 중국에서 기독교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탈북민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탈북민은 먼저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다. 남한 내 3만 3천명의 탈북민 선교가 북한 선교이고, 그들 한 명 한 명이 북한에 세울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의 길을 여는 사람들로 사용하실 것”이라며 “탈북민들을 통일 후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 폼페이오의 경고... “종교자유, 美 외교서 후순위로 밀려나”

지난주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해외 주재 미국 대사들이 종교의 자유를 경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뱀티스트프레스에 따르면 폼페이오는 13일 저녁 LA의 힐튼 뉴올리언스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황혼의 마지막 빛: 미국의 종교 자유 상태’ 행사에서 연사로 초청됐다.

이 행사는 리버티대학교 (Liberty University), 스탠딩 포 프리덤 센터 (Standing For Freedom Center) 및 보수 침례 네트워크 (Conservative Baptist Network)가 주최했다.

패널 토론에는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회장인 토니 퍼킨스, 파운더스 미니스트리(Founders Ministries) 창립자 겸 회장인 톰 에스콜 목사, 프롬히즈헤트 미니스트리(From His Heart Ministries) 설립자인 제프 슈리프 목사가 종교 자유에 대해 논의했으며, 진행은 라이언 헬펀

바인 스탠딩포프리덤 전무이사가 맡았다.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폼페이오는 연설에서 자신이 5학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시기에 주택소유주협회(HOA)의 회원이 되면서 정치 경력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를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박탈했고, 이후에는 국무장관에 임명했다.

폼페이오는 “워싱턴이 그 (종교 자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 할 것”이라며 “우리가 교회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가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정부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두려움 없이 당신의 믿음을 지키라. 종교 자유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원치 않는 부패를 직면하게 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6월 13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보수 침례교 네트워크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뱀티스트프레스

며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의 종교 자유가 오늘날 미국 대사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 교육의 자유가 위협

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폼페이오는 “우리는 교회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 이사회에서 진지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 나라는 미덕에 근간을 둔다. 기도를 드리라.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헌신적인 애국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중에 퍼킨스 회장은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종교의 자유는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성소수자(LGBTQ) 의제를 그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헬펀바인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중 9000만 명이 자신을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된 유권자의 비율은 40%를 넘지 않으며, 실제로 투표하는 비율은 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신앙 이야기 멈추지 않을 것”

에릭 애덤스 미국 뉴욕 시장이 최근 아버지의 날 연설에서 사회에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며 “언론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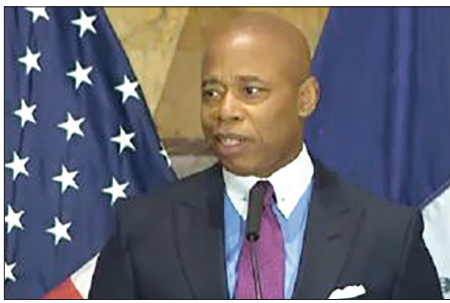
그는 커크패트릭 코홀 목사가 담임하는 브루클린의 레녹스 로드 침례교회에서 회중들을 향해 “에스터 4장 14절의 순간이다. 하나님은 이런 때를 위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불안정한 사람을 취하셔서 뉴욕 시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수준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했다.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밝힌 아담스(62) 시장은 ‘Church of God in Christ’에서 자라났지만 대부분 초교과 예배에 참석한다고 CP는 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 뉴욕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근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순종하기로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30여 년 전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깰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년 2022년 1월 1일에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메시지는 분명했다. 하나님은 ‘너는 침묵할 수 없으며 너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사사기 7장 2-7절의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사기 7장 2-7절은 기드온이 불과 300명으로 13만5천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됐다.



에릭 애덤스(Eric Adams) 미국 뉴욕시장. © 뉴욕시 유튜브 영상 캡처

애덤스 시장은 “난독증이 있었고 젊은 시절에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시장으로 이끈 하나님의 비전을 따를 때 도시에서 고쳐야 할 사항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행정부의 일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내 행정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정상적인 정치 방식을 통해 나오지 않은 비전통적인 사람들”이라고 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 2월 28일 시의 연례 종교 간 조찬에서 신앙 지도자들에게 “공공 광장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기도를 금지한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라고 덧붙이며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기도할 시간이다. 기도할 때”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美 목회자 웰빙 조사 결과, 7년 전 비해 상당한 감소”

바나 리서치(Barna Research)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및 전반적인 건강과 같은 웰빙을 측정된 조사에서 목회자들은 지난 7년 동안 상당한 감소를 겪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회복력 있는 목회자’(Resilient Pastor research) 연구를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인용한 바나 리서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순위를 매기도록 요청했을 때 웰빙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감소를 겪었다고 밝혔다.

2015년 자료는 그해 4월에서 12월 사이 수집된 미국 개신교 담임목사 901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했다. 2022년 자료는 그해 9월 6일에서 16일 사이에 수집된 585명의 미국 개신교 담임 목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인터뷰를 기반으로 했다.

진정한 친구를 갖는 것에 관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목회자의 20%는 2015년의 10%와 비교하여 해당 영역에서 자신을 평균 이하로 평가했다. 2015년에는 2%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7%가 자신을 진정한 친구를 갖는 것에 있어 형편없다고 답했다.

2015년에는 34%의 목회자가 진정한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그 비율은 2022년에는 17%로 떨어졌다.

목회자들은 또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신체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목회자의 7%만이 신체 건강이 평균 이하이거나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7년 후인 2022년에는 그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한 22%가 되었으며 약 18%는 자신의 상태가 평균 이하라고 보고했다. 2015년 24%

에 비해 2022년 목회자의 9%만이 신체적 건강이 우수하다고 보고했다.

정신적, 정서적 건강이 평균 이하라고 보고한 목회자의 비율은 2015년 3%에서 2022년 10%로 증가했다. 정신적, 정서적 건강이 우수하다고 보고한 목사의 비율도 2015년 39%에서 2022년 11%로 감소했다.

‘The Summer Sabbatical’ 웨비나에 참여한 ‘회복력 있는 목회자’ 교수진 샤론 호드 밀러 목사는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고, 전반적인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목회자들이 더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조사는 바나 리서치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해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이유로 2022년에 더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둘 것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임사역을 그만둘 생각이 있는 목회자의 절반 이상인 56%는 “사역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큰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 외에도 목회자 5명 중 2명(43%)은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라고 답했고, 또 다른 38%는 “현재 정치적 분열”로 인해 사임을 생각했다고 답했다.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에 있는 록하버 교회(Rockharbor Church)의 글렌 팩키암(Glenn Packiam) 담임목사는 교회들이 지도자들의 안식년을 ‘예방적 건강관리’로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다.

팩키암 목사는 바나 보고서에서 “교회에 (안식년을) 도입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는 누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안식년을 받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현명한 부모를 위한  
아동 심리 교육  
특별 OPEN강좌

# 우리 자녀 마음읽기

「EBS 육아학교」 이영애 교수와 함께 하는

7.6(목) PM 7:00 | 자녀의 자존감  
7.7(금) PM 7:00 | 자녀의 사회성  
7.8(토) AM 10:00 | 기질에 따른 학습방법

장소 **엘바인중앙침례교회 (www.ikjbc.org)**  
240 GODDARD, IRVINE, CA 92618  
949-800-9647  
ikjbcorg@gmail.com

**강사 | 이영애 교수**  
전) 원광아동상담센터 소장  
현) 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놀이치료학과 교수

[저서]  
“엄마도 놀이 전문가”, “아이의 사회성”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스토리텔링 육아” 등 다수

[방송 출연]  
EBS [부모], KBS 1라디오 [교육을 말합시다], KBS 1라디오 [오상진, 이정민의 황금시대],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회성 1편-지존감, 아이의 사회성 2편- 형제 갈등, 아동영적 미스터리와 과학, 내 아이의 전성 알레르기, 파켓메이커, 오래된 미래 전통 육아의 비밀, 놀이의 변신, MBC 생방송 여성토크 [워드], [꿈같은 이야기 Y],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및 자문

**등록비 무료**  
**동반자녀 Care program 운영**  
**개인상담**(7월8일, 신청자에 한함)  
- 강의 참석 전 **MBTI**(부모, 자녀 모두) **Test**를 하고 오시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명성교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일) - 한영성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침 문안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ken 고지)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경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통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학교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안)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강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강부 오후 7:00(금)  
금요일(대)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강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강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침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래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PCA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은 ‘죄’, 바이든 행정부에 청원 제출”

미국 장로교(PCA)가 바이든 행정부와 정부 지도자들에게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성별 개입을 수행하는 죄를 포기할 것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미국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 열린 PCA 50차 총회에서 이 교단은 ‘정부의 미성년자 성전환 절차 종료 청원’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1089대 793로 통과되었다. 앨라배마 주 버밍엄에 본부를 둔 ‘PCA Evangel Presbytery’가 소개한 이 결의안은 소위 ‘성전환 절차’가 신의 설계에 대한 거부이자 과학에 대한 거부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와 50개 주 정부 모두에 ‘검허한 청원서’를 보낼 것을 결정했고 선출된 공무원들에게 “미성년자의 모든 의료 및 외과적 성전환 절차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 의료 제도에 의한 모든 의료 및 외과적 성전환 절차의 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결의안은 “정당한 시민권에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권위에 관한 하나님의 권고를 겸손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고 기록됐다.

결의안은 즉시 발효되며 어린이에 대한 수술 및 호르몬 성별 개입에 반대하는 교단의 기록을 상징한다고 CP는 전했다. 청원서는 주 및 연방 공무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PCA는 미 전역에 2천여개의 교회가 소속된 개혁교단이다. 지난 1973년 PCA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부인하며 오랫동안 발전해 온 신학적 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미국(남부) 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에서 분리되었다.

올해 PCA 총회 의장인 프레드 그레코 목사는 폭스뉴스에 “성별위화감이 있는 아동을 신체적 절단에 처하게 하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레코 목사는 “8백여명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레코는 대부분의 반대는 성전환 수술, 사춘기 차단 약물, 어린이에 대한 교차 성 호르몬의 피해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공공 정책 관



©pixabay

련 국가를 대상으로 청원하는 교회의 역할에 있었다”고 말했다.

개혁 신앙 전통의 기초를 형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대화와 교회 공의회가 “특별한 경우에 검허한 청원을 통해서가 아닌 한 연방과 관련된 민사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개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이 ‘특별한 경우’의 정의에 적합하다고 믿고 있다.

그레코 목사는 “정부 관리들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개입 없이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라며 “매우, 매우 위험하다”라고 했다.

이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게 만들었다. 또한 ‘특별한 경우’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나쁜 도덕적 결정이 아니라 정부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허용한다”라고 했다.

이 청원은 올해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3백만 명의 어린이가 부모 동의 없이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과 선호하는 대명사를 변경할 수 있는 학군 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주에서 의료 전문가가 성별위화감이 있는 아동에게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개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한 법에 반대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테네시 지부가 유사한 법에 대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원고 측으로 이 사건에 개입했다. 이미경 기자

## 유타주, 학교 도서관에 성경책 다시 추가



©Mitchell Leach/ Unsplash.com

유타부도연합은 이러한 움직임을 “정치적 행위”라며 일축했다. 이 단체는 페이스북에 공개한 성명에서 “성경에 도전하는 이 청원서는 정치적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것은 학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데이비스 교육구의 초등학교 학부모인 밥 존슨은 “성경의 어떤 내용 때문에 이를 학교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성경 안에는 그런 그림이 들어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후 70명이 나 되는 사람들이 교육구에 항소를 제기했다.

학군은 물론경과 꾸란을 포함한 다른 종교 문서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없이 학생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성경이 제거된 후,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LDS) 물론경이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 달라”는 또 다른 요청도 있었다.

CP에 의하면, 도서 금지에 대한 전쟁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가열되고 있다. 지난 가을 미도서관협회(ALA)는 아동 성행위와 소아성애를 묘사하는 노골적인 자료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에 의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LA는 202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서관에서 1,651권의 도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681건의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2021년에는 1,597권의 책 제목에 대해 729건의 금지 시도가 이뤄졌다. 강혜진 기자

미국 유타주의 한 학군 도서관에 성경책이 돌아왔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북부의 데이비스 교육구 이사회는 지난 20일 “성경이 학생기 아이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행위와 폭력’과 관련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경책을 금지했던 이 위원회는 이날 “성경에는 폭력적이거나 저속한 내용보다 더 중요하고 심오한 가치가 있다”며 재평가를 내렸고, 이에 따라 모든 학년에서 성경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 학생의 부모가 제기한 단 한 건의 불만으로 인해, 이 위원회는 지난달 데이비스 학군의 8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도서관에서 성경을 제거했다.

이에 기독교 학부모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솔트레이크시티 의사당에 모여 반대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성경 말고 포르노를 없애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 英 성공회 목사들, 지속적 생활비 위기 속 5백년 만에 급여 인상 요구

영국의 생활비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 성공회 교구 목사들이 공식적으로 급여 인상을 요청했다. 이는 5백여년 동안 일어난 적 없는 조치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영국 성공회 내 성직자 2천명과 평신도 임원을 감독하는 연합인 유니이트(Unite)는 2024년 4월부터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9.5%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유니이트의 CEECA(Church of England Clergy & Employee Advocates)는 처음으로 영국 성공회의 보수 및 봉사 조건 위원회(RACSC)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초대받았다.

유니이트 활동가이자 성직자인 샘 매기니스는 성명을 통해 "성직자들은 생활비 위기 중에서도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해 왔다. 중요한 봉사와 활동을 촉진 및 조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개인 돌봄과 안내를 제공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희망과 연대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해 많은 성직자들이 생계를 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 지원에 의지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매기니스는 "너무 많은 성직자와 그 가족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고난과 불안을 해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맞춰 급여를 되찾는데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모든 성직자는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이트는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급여를 지원하는 본당이 일선 성직자 및 지역사회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라고 했다.

샤론 그레함 유니이트 사무총장은 "2022년 교회 위원들의 연례 보고서에 103억 파운드(132억 달러)의 투자 기금이 기재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기금이 성직자들의 급여 인상을 허용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함 사무총장은 "모든 근로자와 파



©영국성공회 페이스북

찬가지로 영국 성공회 성직자들은 생활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소명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한 진실은 현재 보상으로 그들은 일하는 빈곤층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성공회 대변인은 교단이 목회자들의 생활비 위기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및 기준 급여 수준에 대한 연간 권장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교구의 경제성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하원 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에 따르면 2022년 10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1년 만에 최고치인 11.1%에 도달하면서 2021년과 2022년 동안 영국에서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했다. 2023년 4월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8.7%로 완화되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은 가정용품과 서비스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쳤다.

CP에 따르면 지난 해 수십만 명의 영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영국 성공회는 상승하는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 380만 달러를 따로 마련했다.

유니이트는 성직자의 국가 최저 급여를 2만9천340 파운드(3만7천60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가 급여 기준을 3만1천335파운드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경 기자

#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학살, 5월에만 최소 700명

나이지리아 아남브라에 본부를 둔 국제 시민자유법치협회(Society for Civil Liberties and Rule of Law)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최소 700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 중북부 고원주 망구 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건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반기독교 폭력 중 하나로 기록됐다"며 "해당 기간은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피를 흘렸던 기간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최소 300명, 4월 12일에서 6월 12일까지 최소 1,10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농산물이 풍부한 미들 벨트주에서도 지속적인 폭력이 목격되고, 북동부 보호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와 같은 급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 같은 인도주의적 재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은 적절한 개입의 지속적인 부재가 폭력이 지속되도록 허용할 뿐이라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NGO 보고서의 주장에 아직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인권단체 인터소사이어티(Intersociety)가 공개한 보고서 역시 "지하디스트 풀라니 목자들, 보호하람,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지부, 알카에다 관련 안사루 등 다양한 단체가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신앙 자유를 위한 영국 상하원 초당공동위원회'(APPG)는 2020년 보고서에서 "대부분 무슬림으로 구성된 풀라니족은 극단주의에 노출되지 않은 다양한 활동의 수백 개 씨족으로 이뤄져 있지만, 일부 풀라니족은 급진적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나이지리아를 '중고 자유 침해 특별우려국'(CPC)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 국무부와 의회에 종교의 자유 문제를 자문하는 초당파 그룹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나딘 마엔자(Nadine Maenza) 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CPC 지정은 종교 자유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및 기타 억지 조치의 가능성을 수반한다.

미 국무부는 최신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과 무슬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폭력의 급증에 주목했다. 세계 무장 분쟁 지역, 납자,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수집하는 데이터 프로젝트(ACLEDD)는 2022년 "전국적으로 폭력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3,953명이며,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전체의 5%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특히 "북부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빈번한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수많은 사망자가 생겼다"고 밝혔다.

강해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발리예배 OC예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중/영)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한어청년부 주일오후 1:0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지영한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아침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청년예배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혁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부분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겠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예식이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1:00  
 목요일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2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이른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스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오후 1:30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금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쿠키 모임 오후 6:00(월)

**권혁태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정식)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인제문(요정식)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영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피뎀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김요한 담임목사**

Global United Church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강준민 칼럼

# 놓아버림은 영성 훈련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놓아버림은 소중한 영성 훈련 중의 하나입니다. 놓아버림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놓아버림은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놓아버려야 할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놓아버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을 결코 놓을 수 없다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이것 한 가지만은 결코 내어놓을 수 없다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자유롭게 못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서 그에 대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삭을 생각하고, 이삭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소유한 어느 날부터, 이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를 소유해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그 소유한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를 소유해 버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에 얽매어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소유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아버려야 할 것을 놓지 못할 때 놓지 못한 것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날, 그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삭을 놓아버렸습니다. 놓아버림은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고귀한 보배를 내려놓았습니다. 놓아버림은 양도(讓渡)입니다. 양도(讓渡)란 재산이나 물건이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아들 이삭을 양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입니다. 별거벗은 몸으로 태어난 우

리가 무엇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얻은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예비하신 솜양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다시 그의 품에 돌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까닭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대신에 가장 소중한 분을 소유한 까닭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삭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외에도 우리가 놓아버리고 맡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선입견, 편견, 탐욕, 과거의 상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미움, 질투, 복수심 등 많은 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놓아버림은 놓아줌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손만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넣어 둡니다. 원숭이는 냄새를 맡고 항아리에 손을 넣습니다. 원숭이는 손에 먹이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움켜쥔 채로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원숭이가

손에 움켜쥔 먹이를 놓아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원숭이는 붙잡히게 됩니다.

놓아버림은 잘 흐르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인 물이 썩습니다. 무엇이든 멈추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흘러야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나무에 끝까지 매달려 있는 도토리도 결코 거대한 참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도토리는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겨울나무는 모든 것을 벗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벗어 버릴 때 나뭇(裸木)이 됩니다. 나뭇(裸木)이 된 겨울나무는 봄이 되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을 비운 까닭에 새봄을 맞이한 것입니다.

과거를 놓아줄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매듭지어야 할 인연을 놓아줄 때 새로운 만남이 전개됩니다. 오래된 것을 놓아주어야 새로운 것이 찾아옵니다. 놓아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놓아주는 훈련을 날마다 하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을 때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놓아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곧 옛사람이 죽을 때 새사람이 태어납니다. 놓아주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흘러보내는 훈련을 날마다 하십시오. 그 길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김한요 칼럼

# 전쟁에서 이기려면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투 의욕이 올랐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도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작을 피우는 것이 사탄입니다. 온 삶을 던져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더 크냐? 비교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눅 22:31)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수작은 오늘,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찾아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늘 대면해야 하는 문제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되나 보다’ 낙심하고 있을 때, ‘병거 타고 달려 오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면 다시 전투 의욕을 불태우며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기도 충천해 있어야 하지만, 군사들의 군기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기는 잔뜩 올라 있는데, 영적 전쟁의 현장을 다시 맞닥뜨리면 종종 패배의 쓴잔을 마시곤 합니다. 그 이유는 군기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가 올라가면 군기가 엉망이 되고, 군기가 바짝 서면, 사기는 죽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사기와 군기가 같이 올라 있어야 승리가 보장됩니다. ‘잘 해줘보자 소용없다’라는 말, ‘원칙만 고수하다가 사람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사기와 군기가 균형을 잃어버린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사기와 군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기

가 올랐는데 현장에서 자주 실패를 경험했다면, 저는 신앙의 기본기 습득을 위해 제자훈련을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골격을 잡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몸의 균형을 잃었다면 비틀어진 골격을 바로잡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군기 없이 사기만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면 그것은 참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동 방법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턱 쏘면 기분이 좋아 사기가 오릅니다. 사기를 계속 올린다고 좋은 식당에서 계속 밥만 사주면 기분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자기 절제를 모르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기분이 없으면 몸의 균형을 잃고 비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들입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영적 분위기와 말씀의 훈련을 맘 흘려 받는 군기로 백전백승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십시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junimedia@gmail.com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웹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양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슬랑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 한창 때를 주님과 함께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지난 주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재개된 제5회 청소년연합수련회를 통해 ‘한창 때’를 보내는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을의 결실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한 ‘한창 때’를 보내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일의 희망을 누리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더불어 다음세대

의 ‘한창 때’를 잘 보내도록 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라는 평범 이하의 이민자로 태어났지만, ‘한창 때’를 잘 지내므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최대의 유업을 달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세와 함께 자신의 ‘한창 때’를 보냈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의 경험 중에 하나는 공항에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자신의 미국 직업도 정해지기가 쉽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내 능력을 개발하느냐는 내 모델이 누구이며, 무엇이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에 원수 마귀는 우리 인생의 모델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진화론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여 원숭이를

따르게 합니다. 잘못된 유행이나 풍조나 사라질 스타를 바라보게 하여 세속의 강한 바람 속에 휘둘림을 당하는 육신의 사람이 되게도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한 후 광야를 지날 때 모세의 걸 옷을 챙기고 물을 떠다 나르는 시종에 불과한 듯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랐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애굽에서 민족의 탈출을 이루며 수많은 위기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 하는 충성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고스란히 누리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한창 때’를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하므로 남은 인

생 전체가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창 때’, 한 해의 ‘한창 때’, 하루의 ‘한창 때’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지혜와 결단은 우리 모두의 내일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청소년연합수련회에 참석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교역자들과 교사들, 최고의 사랑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음식과 섬김에 진심이었던 봉사자들, 성령님의 터치를 꿈꾸며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한 중보 기도자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의 은사로 교회의 일에 함께 했던 한 분 한 분이 바로 자신의 ‘한창 때’를 주님과 함께 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내 인생의 ‘한창 때’를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 기뻐 찬양하라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성경 안에는 찬양을 통한 기적의 사건들을 종종 제시합니다. 최초의 회중 찬송으로 기록된 모세와 미리암이 온 백성과 함께 드리는 찬양(출 15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전장(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모두 수장시킨 후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사울을 음악으로 통해 치료하는 기적이 나타나십니다 (삼상16:23). 사울에게 들어가 있는 악령을 다윗이 수금을 타며 이 악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찬양을 통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유다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방 족속인 모압, 암몬 자손들을 찬양을 통해 격퇴시키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전체에 걸쳐서 이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전 장 19장에서 여호사밧은 나라를 개혁시키고 재판제도를 확립하여 종교를 바로 잡는 일을 수행하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압과 암몬의 거대한 연합군이 침입하게 되어 대단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대하20:15)임을 알게 하였고 이에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8절) 그리고는 말씀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을 말씀으로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21-23)

전쟁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워 전투에 임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참 특이합니다. 아무 무기도 소유하지 않은 채 오직 거룩한 옷을 입힌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 그들이 찬양하게 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 전투에 임했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오직 그 뒤를 쫓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기적은 암몬 모압 자손이 세일산 거민을 치고 그리고는 그들이 서로를 격퇴해 모두 패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존하는 미국의 교회음악 작곡가 죠셉 마틴(Joseph M. Martin, 1959 - ) 이 작곡한 안테 "기뻐 찬양하라 (A call to Joyful

Praise)"를 보면 필자는 마치 이 여호사밧 찬양대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서 그들이 찬양하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틴은 두 개의 튠을 합성하여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개신교 찬송가 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히브리 튠입니다.

전반부는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 의 찬송 "만유의 하나님"을 대입시켰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유다 백성들이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모든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만유의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신 권위를 드러내는 위엄있는 찬양으로 시작하며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장엄한 찬송가의 가사는 1744년 찰스 웨슬리의 형 존 웨슬리 (John Wesley, 1703-1791)의 책 "Moral and Sacred Poems" 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1746년 찰스는 그것을 "Our Lord's Resurrection" 찬송가의 16개 선집 중 하나로 출판했습니다. 우리 찬송에는 네 절로 되어있는데 원래는 여섯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찰스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훈계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기 감리교 인들은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고 찰스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감옥에서 쓴 바울의 말을 바탕으로 이 찬송을 썼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유다 군대를 앞세워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찬양했음직한 부분이 나

타나집니다. 히브리 전통 음악을 사용하여 경쾌한 리듬의 춤곡으로 느껴지는 이 찬양의 근원(origin)은 히브리 멜로디인 "Yigdal (Magnify O living God)" 입니다. 이것을 1770년 영국의 감리교 복음 전도자 Thomas Olivers(1725-1799)가 런던에 있는 회당 (Great Synagogue)을 방문하고 난 후 기독교 찬송으로 도입해서 1772년 처음으로 기독교에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튠은 히브리 아침 예배의 시작과 저녁 예배의 종결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가사는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 구약의 히브리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바로 구약의 예배자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이들이 드린 찬양 가사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 영광과 위엄, 그리고 높고 위대하심을 감사로 나타내어 이것을 깊은 음악적 선율로, 때로는 기쁨의 춤을 추는듯한 흥겨운 리듬이 가미된 멜로디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형태를 갖고 모압 암몬 연합군 앞에서 찬양할 때 그들은 좌충우돌 서로를 섬멸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놀라운 기적을 드러냅니다. 거기에는 찬양의 본질을 갖고 찬양해야 하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드러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외에 요소들은 다 수단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 성경쉽게읽기 특강

**성경 일천번 이상 통독하신 강사가 아래와 같이 '성경쉽게읽기'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2023년 7월 6일, 13일, 20일, 27일 매주(목) 오후 7시(4주간)
- 장 소: Kairos University Campus (얼바인 분교 2층)  
2681 Walnut Ave, Tustin, CA 92780
- 등록인원: 40명 선착순(인원이 차면 다음 기회에)
- 등록비: \$50 (교재 및 Fellowship)
- 등록방법: 949-304-8912 이메일: bible100plus@gmail.com
- 강 사: 데이비드 리 성경읽기선교사
- 주 최: 성경쉽게읽기선교회 (본 선교회는 성경읽기에 관하여만 가르칩니다)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청빙

KCOC is looking for a Part-time youth pastor, We are located in Orange County, CA. We are a member of CRC denomination and our senior pastor is Joshua Nam.

1. **Qualifications:** experience preferred
2. **Documents:**
  - 1) Resume
  - 2) Self-introduction letter (including personal testimony, calling, ministry experience, family introduction)
  - 3) Pastoral Recommendation
3. **Salary/Benefits:**
  - 1) Will be discussed during interview
  - 2) Can change to half-time or full-time
4. **Application Deadline/ Inquiries**
  - 1) Deadline: July 31, 2023
  - 2) Please submit all applications through email(kcocooffice2@gmail.com)
  - 3) For questions please call (714) 893-165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파트타임)를 청빙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목사 : 남성수 / CRC 교단)에서는 함께 동역할 중고등부 사역자(파트타임)를 청빙합니다.

1. **지원 자격** 1) 유경험자
2. **제출서류**
  - 1) 이력서
  - 2) 자기 소개서 (신앙간증 / 소명 / 목회경험 / 가족소개)
  - 3) 목회자 추천서 1부
3. **사례 및 혜택**
  - 1) 사례는 면접 시 안내해드립니다.
  - 2) 추후에 하프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4. **마감 및 문의**
  - 1) 2023년 7월 31일까지
  - 2)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kcocooffice2@gmail.com)
  - 3) 문의 전화: 714-893-1652(교회 사무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93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영혼 돌봄의 참신한 고전모델

# 목사에게도 그의 영혼 돌봐줄 목사가 필요하다



신 근면 성실함과 목장 일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교훈들을 목회에 접목시켜 설명하기 때문이다. 번역서는 그래서 제목을 <목자, 개, 양 떼>로 지었다.

양을 돌보시는 대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바라보며 받은 지혜와 방침대로 양 떼를 몰아야 하는 목양권 목사, 돌봄을 받는 성도들을 각각 의미한다.

센크바이일은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와 옛 세대의 지혜와 함께 목사는 반드시 '습성'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이 옳다.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습성이 있다. 목자와 함께 동행하며 목자의 시선으로 양 떼를 바라보는 법은 오랜 세월을 통해 습득하고 체득하는 것이다. 양을 더 알아갈수록 양의 필요와 심정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

저자 센크바이일이 다룬 목회의 가장 신선하고 참신한 부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루터교 배경에서 나온다. 성례를 집전하고 성찬을 전달하고 죄를 용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목사의 사역은 전적으로 대목자(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일이다.

저자는 목사의 고전적 모델을 벗어나지 않고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목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크게 강조하지 않는 대리자 성격을 부각하여 설명한다.

목사는 자신이 받은 것만 전달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목사가 받은 것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는 걸 의미한다.

신선한 충격이다. 개혁주의도 목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그리스도께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지만, 센크바이일의 강조점은 한 발 더 나아가 목사가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성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가령 목사는 성도의 죄 용서를 선포한다. 목사가 가진 권한이 아닌 위임받은 권한으로. 약속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인기 있는 목회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회원 관리부터 교회 경영, 프로그램 구현 등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목회에 필수적이며, 성공(?)을 보장하는 특별한 방식을 따르면 누구나 반드시 부흥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저자가 말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목회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회원 관리가 아니라 영혼 돌봄이다. 인간이 세운 기관이나 센터가 줄 수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죄책을 제거하고, 용서를 선포하며, 계속해서 수치심이 아니라 용납과 은혜를 맛보게 하는 일이다.

이 일에 끝까지 성실한 일꾼이 되려면 다른 이들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



©pixabay

볼 수 있어야 한다(빌 2:4).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의 용서를 받고 수치심을 씻어 평안을 누리려는 자가 다른 이의 영혼도 돌볼 수 있는 것이다.

저자 센크바이일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처럼, 목양권에게도 목사가 필요하다(다른 말로 목사에게도 목사를 돌봐줄 목사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을 만큼 홀로 위대하고 완벽한 목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센크바이일은 머리맡에 밝힌 것처럼 최대한 '루터교 용어'를 피하며 이 책을 썼다. 하지만, 루터교 전통은 그의 사도 방식과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책의 여러 부분에서 그것을 독자가 발견할 수 있다. 어떤 구체적 기술은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거나 넓은 복음주의 안에 있는 독자를 당황하게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질감은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으로 독자에게 신선하게 목회에 필요한 통찰과 교훈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목자, 개, 양 떼: 성도가 바라는 목사>를 통하여 목양권으로 충성하는 많은 목자가 더 충성스럽게 주인을 바라보고, 더 풍성히 목자에게 받아 양 떼에게 나눠주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양 떼를 돌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돌봄을 얻기를, 마침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목자, 개, 양 떼  
해럴드 센크바이일 | 김순현 역  
무근검 | 464쪽

성도가 바라는 목사  
참되고 바람직한  
영혼 돌봄이란?

의사가 신체를 돌보듯  
목사는 영혼을 돌본다

새로운 세대를 사는  
목사들에게 성도의  
마음과 영혼을 섬기는 데  
꼭 필요한 경건한 습관을 들이고  
실제적 지혜를 쌓도록 권면한다

렉햄(Lexham)에서 나온 해럴드 센크바이일(Harold L. Senkbeil)의 책, <목자, 개, 양 떼: 성도가 바라는 목사>는 2019년 여러 기독교 저자, 목사, 기관 등에 의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제라드 윌슨, TGC, 크리스체리티투데이).

원제는 'The Care of Souls'로 '영혼의 돌봄'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미니스트리'로 분류되고, 목회를 다루고 있다. 저자 센크바이일은 루터교라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50년 이상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Spiritual Warfare: For the Care of Souls(2023)', 'Pastoral Leadership, Church Leadership(2021)', 'Strategy: For the Care of Souls(2019)' 등 리더십에 관한 책을 몇 권 더 저술했다.

원서 표지에는 농장을 그린 삽화가 그려져 있다. 저자의 아버지가 농부로서 보여주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나 지혜로운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능허가 네게 더하리니라

잠언 9:11

For through wisdom  
your days will be many,  
and years will be  
added to your life.

PROVERBS 9:11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sup>TH</sup>) • MYP(6<sup>TH</sup>-10<sup>TH</sup>) • DP(11<sup>TH</sup>-12<sup>TH</sup>)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강승애, 물댄 동산같은 풍경

#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 이르는 지름길

작품 속 씨앗, 새싹, 나무, 꽃 등은 은유 그의 빛,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총 상징 은유 없이 본다면, 평범한 정물화 불과 선하신 주님 다스리고 돌보심 환기시켜

강승애의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러 식물의 이미지이다. 노랑 바탕에 초록색 나무가 위치해 있는가 하면, 분홍색 바탕에 풀잎이 흔들리고 한편으로는 길쭉한 풀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씨앗과 빛줄기는 복음의 씨앗이 은총의 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마른 땅이 샘의 근원(사 41:18)'으로 바뀌듯, 잎과 가지를 내고 꽃을 피우며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보통 풍경화라면 하늘과 산과 같은 배경이 있으면, 그의 그림에는 그런 게 없다. 땅 위에 솟아난 새싹, 화분 속의 화초, 대지 위의 나무처럼 꼭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편이다.

간결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식물 이미지들을 일종의 메타포로 사용하는 작가의 의도가 깔려 있다. 작가는 이런 식물들 속에서 인간의 내적 상황 내지 성숙 과정을 조명한다. 보는 이가 땅 속에서 묵묵히 겨울을 견디는 씨앗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완전한 봄기운을 맞아 새싹이 피어오르고, 시간이 흘러 과실을 맺는 일련의 단계를 떠올리게 한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강승애는 스튜디오 안의 정경, 식탁 위의 머그잔이나 석류와 화병, 해질 무렵 동네 인근, 실내 풍경, 시골 마을 등을 주요 테마로 다루었다. 현실의 모습을 포착한 것도 있고, 지난날 아스라한 꿈을 회상한 것도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회화의 지평을 여는 뚜렷한 변화가 포착된다. '생명나무'(1999), '평화'(2000), '축복'(2003), '은혜'(2004), '기쁨'(2005), '빛'(2008)과 같은 신앙적 삶의 내역을 담게 된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굵지 못한 상황에서도 강승애가 기독교 신앙에 바탕한 작품을 해온 것은 문화명령을 실천하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강승애 작가가 구사하는 메타포,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른 대상에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기독교 영성의 예술적 표현에 큰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종래 기독교적 내용의 표현이 표제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면, 강승애의 메타포는 성경의 풍부한 함의를 예술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제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겉으로는 식물의 이미지인 것 같지만, 정작 작가가 우리에게 제

공하려는 내용은 표면의 사실이 아니라 이면의 사실, 곧 영적 진리에 잇대어져 있는 셈이다.

작가에 따르면 그의 작품에서 '씨앗'은 믿음의 원소이고, '빛줄기'는 은혜의 단비이며, '꽃'은 신앙의 결실, 껍에 담겨진 '말'은 성령의 충만을 각각 표상한다. 작은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는 과정은 바로 우리의 내적 성숙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면 그의 그림은 작은 믿음의 씨가 떨어져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 아름답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자라나듯, 그의 그림은 영적 통찰에 의해 점점 깊어진다.

예수님은 농경적 이야기를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자와 토양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등. 예수님은 평범한 식물들에서 생명의 근원을 깨닫고 삶을 돌보는 법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비유만큼 적합한 것이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이 오랜 기간 예술가들에게 막대한 영감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승애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것이 창작의 밑거름이고 작업의 원동력이 된 셈이다.

화면으로 눈을 돌리면, 작품에는 화분의 화초를 비롯해 꽃망울, 연두빛 잎파리, 줄기, 나무, 꽃 등이 펼쳐져 있다. 여기에 이미지의 변용과 과감한 면 분할, 그리고 변집 수법이 더해진다. 밑칠을 하고 그 위에 물감이 중첩되어, 마치 셀로판지를 덮었을 때처럼 바탕의 물감이 배어나오는 효과로 회화적인 묘미를 배가시킨다.

근래에는 부쩍 빛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빛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강렬한 빛은 아니다. 마치 반투명한 한지에 비친 햇살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

대체로 은은한 빛의 속성으로 인해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작가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거룩한 순간을 암시하는 수단으로 빛을 기용한다.

근작 <동행>에서는 눈동자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작가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든지 자비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암시한 것이다.



강승애, 나무, 53x45.5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13.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어(시 33:13)". 화면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빛줄기 속에서 대지의 생명을 키우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심과 돌보심을 암시한다.

이 작품은 소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물이 그분 없이는 유지되지 못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골 1:16). 눈동자와 연결된 함의는 하나님의 선하며 전능하신, 우리를 돌보시는 다스림과 섭리이다.

앞서 언급했듯 그의 작품은 은유 체계로 둘러싸여 있다. '씨앗'의 이미지가 그렇고, '새싹'과 '나무' 그리고 '꽃'도 마찬가지이다.

'빛'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빛은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식물들뿐 아니라 일상 곳곳까지 파고들어 미소짓게 한다.

만일 우리가 은유를 고려하지 않고 그 이미지를 단순히 물리적인 식물과 빛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의 회화를 평범한 정물화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그림의 동기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세계는 신적 계시로서 이해된다. 이런 사고는 주어진 사물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주의적 사고, 생태계를 자급자족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패러다임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그가 작품에서 말하려는 바는 선하신 주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데 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성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며, 이는 그림에서 암시되듯 빛줄기와 새싹, 나무, 꽃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강승애, 동행(accompany), 73x91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22.

빛줄기 없는 식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빛이 공급되기에 식물들이 활기를 띠며 자라날 수 있다. 즉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분께 주목돼 있을 때 우리는 건재할 수 있으며 풍성한 생명을 만끽할 수 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알려준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현대인의 필수품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 으로

**허리 통증, 손발 저림 통증,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시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오희용 내과**  
HEE Y. OH, D.B. MEDICAL CLINIC

**다이아몬드바 무료체험 오희용 내과 내**

20627 GOLDEN SPRINGS DR. SUITE #2 - D & E DIAMOND BAR, CA 91789  
Phone : 909-480-0099

**Z-UP 전자동거꾸리** LOLC Inc. | Tel. (213)703-0240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For the Spirit & Body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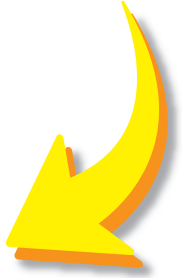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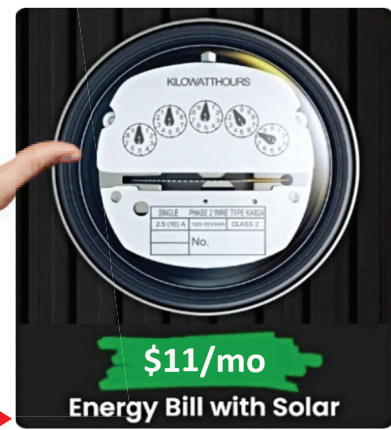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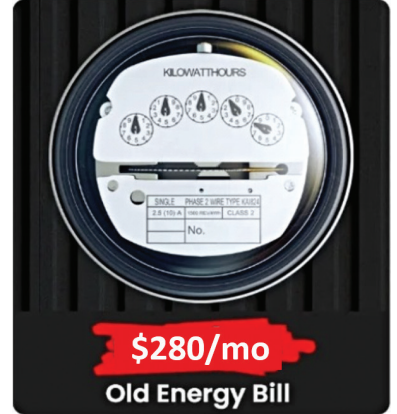


#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SCAN ME

**100%  
Made in  
USA**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소개 해주신 분께 시공 완료 후 500 불을 드립니다**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2~3달 안에 설치** 가능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